

이용용

본회 연구위원,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 강연은 1996년 본회 여름 가족 수련회
에서 행한 것이다.

통일문제와 교회의 역할

저는 통일문제에 대해 이런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전공이 법학이고 해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치 현실 이런 것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다 규범적인 것, 인간의 행위, 행동, 사회 조직이라든가 구조, 이런 규범적인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현실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그래서 어디 세미나에 가면 사실 공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요즘 북한학이라고 해서 대학에서도 전문적으로 강의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은데 전 또 그렇지도 못합니다만, 다만 '민족통일과 한국기독교'라는 책을 몇몇 학자들이 만들 때 저도 거기에 글을 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 나라 헌법 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 해가지고 -- 영토 조항이라고 하지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고, 헌법 5조에 보면 민족 통일 평화적인 통일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해 놓고 있고, 또 헌법에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같은 데 보면 북한에 대해서도 반국가 단체, 이적 단체로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규범 상호간의 헌법 질서 안에서의 조화적인 규정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헌법 5조만 봐도 북한을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본다고 할 수 있고, 또 특히 92년도에 제정된 남북 교류에 대한 법률 같은 것을 보면 북한을 국가 체제로 인정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국가보안법 같은 데 보면 완전히 반국가 단체로 봐서 김일성, 김정일을 수괴로 한 괴뢰 집단이라고 봐서 거기서 통신을 한다든가 교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주 가혹한 처벌을 받는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어서 규범 체계간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규범이 있는데 비해서 정치 현실적으로는 91년도에 남북한이 유엔에 정식 가입을 했습니다.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국제 질서에서의 주체로 인정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참 법 질서 안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규범의 통일성이 없어서 국민이 북한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나 북한과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매우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규범 체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민족통일과 한국기독교'라는 책에 저도 글을 실었습니다만, 그게 정치학적인 면에서 북한에 대한 정세를 분석한다든가, 북한을 가봤다든가 하는 경험이나 지식이 많지 않아서 사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얘기들을 다만 제가 발제한다, 이런 테마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의미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교회의 현실

먼저 북한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헐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지요, 평양에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장총당 성당이 있고 그 다음에 공수교회,

반석교회가 생겨서 일종의 허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떤 면에서 대외적으로 우리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명목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시적인 효과가 큰 그런 성격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참석하고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대개 50대 중, 후반의 아저씨, 아주머니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대의 젊은 사람들이 주일학교를 맡고 성경공부를 가르치고 주일 예배 외에도 수요일날 찬양예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예배만 드리는데 우리가 부르는 똑같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설교하는 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니냐, '내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것 같지 않더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예수는 믿는데 북한 체제 속에서, 특히 주체사상의 체제 안에서 순응되어진 신앙적 고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쉽게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북한 교회는 어쨌든 그런 형태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72년도에 북한 정권이나 남한 정권이나 남북분단이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72년도에 김일성이 주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2년도에 북한도 헌법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아주 김일성 정점에 주체 사상으로 국가 동원 체제를 강화하고 체제적인 결속을 다진바가 있었는데, 남한도 거기에 질세라 7.4공동성명이라든가 적십자 회담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활용하면서 국민들에게 환각을 불어넣으면서 사실은 유신독재라는 왜곡된 헌법질서가 72년도에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그 때의 북한이 72년도부터 신학교육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회들이 세워졌고, 지금 현재 북한에는 약 200여 명의 전도사, 목사가 국가의 인정을 받고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83년도에 들어서서 신약과 찬송가가 발간이 되었고 84년도에 구약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합본은 90년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7,80년대에 들어서 제한된 종교적인 개방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폼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런 창구를 통해서 북한이 특히 남한에 대한 대남전략을 다양화 하겠다는 것이지요. 북한의 통일 전략에 따라서 남한의 종교단체, 사회단체에 제한된 전략을 구사하면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또 한편 실질적인 특히 경제적인 지원을 받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동안 80년대, 특히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제단체가 북한과 교류를 하는 것은 아마 기독교가 가장 앞서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북한의 경제현황

어쨌든 북한의 지금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상황은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 정치적으로는 70년대 석유 파동도 있겠습니다만, 7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에너지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석유나 무연탄 등을 원조받는 식으로 했는데 중국에서도 자꾸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특히 80년대 냉전을 거치면서 소련이 자기 국내 문제 때문에 북한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고 그래서 북한과 중국, 내지는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상당히 느슨해 지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북한의 주체농법이라는 것이 7,80년대를 거치면서 북한의 야산을 개간해서 계단식 농법을 적용해서 농지 개간을 많이 했나 봐요. 북한에 장마가 지면 오히려 그제 재앙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이 되어서 비만 오면 산사태가 나고 홍수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80년대 후반, 특히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렇게 식량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북한이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는 6백만톤의 쌀이 필요한데 지금 250만톤 정도가 매년 부족하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8월, 춘궁기에 들어서서 내년 봄까지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북한에는 노동당 간부나 관료들, 인민 군부대에 있는 북한에서 소위 체제적인 혜택을 받는 기득층들은 그래도 식량문제 때문에 굶어죽을 상황은 아닌데 일반 서민들은 배급이 끊겨서 굶어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중국으로 넘어가고 해서 지금 북한에 난민이라고 할까요, 북한 체제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난민들이 약 2천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서 89년도에 소위 동독의 사람들이 헝가리라든가 체코 등지로 휴가 갔다가 혹은 여행을 핑계 삼아서 동독을 탈출했다가 서독이나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등의 현상이 북한도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을 할 수 없을만큼 지금 북한 체제에 대한 사회적인 이완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선택

그런데 또 북한 정보를 분석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 체제라는 것이 그렇게 동독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오는 것처럼 그만큼의 자유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2천명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중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넘어오느냐는 겁니다. 생명을 내걸고 죽기살기로 넘어오는 소수의 사람들일 뿐이지요. 북한에 그렇다고 사적인 결사체가 있어서 체제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국가에 의한 사회 통제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심각해서 자녀를 놓고도 김일성, 김정일 얘기를 했다가는 그 다음날 잡혀가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체제 이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김정일이 손을 놓고 어디로 도망가 버리는 등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얘깁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심각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을 만큼의 자생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북한의 사회에 대한 통제력은 아직도 견재하고, 주민들이 일어나서 체제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북한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군부와 노동당, 그러니까 당과 군부와의 갈등, 체제 내적인 갈등 때문에 분열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것도 상당히 가상적인 시나리오이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김정일이 군부와 당을 함께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김정일을 내세워서 군부와 당이 함께 정권을 유지해 갈 형편입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워니까 북한이 그것을 외교적으로 탈출해 보려고 남한에 대해서는 일종의 선택적인, 개별적인 정책을 펴고 교회 단체라든가 사회 단체 등을 통해서 북한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특히 식량에 대해서는 북한은 지금 남한의 교회 단체에 대해서 식량을 보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느 때보다도 더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물밑 작업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잘 안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특히 김일성 사후에, 2년 전에 김일성 조문 파동 때 김영삼 대통령의 보수 강경 대북정책 같은 것, 그리고 조문 가겠다는 사람들을 김영삼 정권이 막은 것 등등으로 해서 김영삼 정권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김정일의 사고라고 합니다. 이러면서도 실질적인 외교를 챙기는 북한 정책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정책은 한마디로 경제 개방을 해 가면서 사상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그래서 선택적인 개방정책을 하고 있다는 애깁니다. 그런데 이 선택적인 개방정책이라는 것도 나름대로 북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제 분위기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제 개방의 단계로 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북한의 교회 현실과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현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통일정책과 기독교

분단 질서에 우리가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뇌되어 있어서 남북분단으로 사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분열된 상태를 이용하거나 거기에 근거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크게 저항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국방 예산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의 25%, 30%를 차지하는 것이 국방 예산인데 그 국방 예산이 그렇게 많고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개도 잘 되지 않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저항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계에는 공산주의를 없애야 된다, 그런 세력과 타협하거나 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경험적으로, 혹은 교조적으로 확신에 찬 나머지 북한과의 대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장로님인데, 통일 정책이 자꾸 왔다갔다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외국에서 쌀을 사다가라도 북한에 제공하겠다고까지 말하고, 6.27선거 한 다음에는 확 달라져서 북한에 쌀 한 톨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이 정부 기관 안에서의 정책적인 혼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서의 노선이 달라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경향을 분석해 보면 보수 강경론자도 있고, 인도적으로 북한이 생존할 수 있도록 체제, 이념을 떠나서 도와줘야 한다는 온건론적인, 점진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통일 문제를 놓고 이것을 해결하려는 방법이 다양하고 교회 안에서도 갈라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족 분단에 대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책임이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민족 분단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하

는데 이렇게 민족적인 문제를 놓고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런 일에 상당히 둔감해 있지 않는가 하는 얘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특히, 젊은 세대들조차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기도한다든지 고민한다든지 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인식, 민족에 대한 책임의식, 사회의식, 이런 것이 아직도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런데 또 통일이라는 얘기를 정권적 차원에서는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도 민간 부분에서 우리 나라 국민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한 것이 불과 45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통일 문제에 관한 한 우리 한국 사회는 걸음마 단계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독일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독일 교회는 분단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교회야 기독교가 들어올 때부터 분열적인 요소가 있었고 토착화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열이 났습니다만 그래서 북방선교 같은 데 가 보면 개교회가 자기들의 거점을 마련해 놓겠다는 경쟁적, 이기적인 사고 때문에 서로 상처받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곳이 한국 교회의 선교의 걸림돌이 될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요즘 북한 선교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아마 만약에 북한이 갑자기 개방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강남의 대형 교회들이 거기 가서 수도권 만들고 난리 날 거라는 걱정이 듭니다. 경쟁적으로 해서, 북한의 아직까지 순박한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문 닫아 버리는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는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 미래의 가능성 있는 역기능적인 현상들에 대한 사회 인식에서 우리가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얘깁니다.

통일의 과정

통일을 추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냐. 헌법적으로는 국가 연합적으로 해서 이질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통합을 점진적으로 서서히 해야 된다는 것은 독일의 통일을 앞당겨 놓고 1989년도 독일의 학자들이 논쟁했던 테마 중의 하나입니다. 동서독이 통일할 때는 이렇게 23조에 의한 소위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그런 통일이 아니라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통일 국가를 만들되 국가 연합의 형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질성을 극복하고 서서히 화폐통합, 경제통합, 사회통합, 문화적인 통합을 해 가면서 정치적인 당위성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보수주의 학자들은 동독이라는 데하고 통합해서 배울 게 뭐가 있느냐 오히려 통일 독일 국가 형성에 역기능적인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국가 연합적인 방법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서독이 동독을 흡수해야 된다는 현실론적인, 힘의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그런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과의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몇만명의 난민이 나오게 되고 동독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에 있어서 통일 추진 방법에 대해서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논쟁은 피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저는 급격한, 과격한, 그리고 단시일 내의 통일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동서독의 통일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면서도 우리가 동서독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지요.

독일은 지금까지 통일 5년동안에 7백조원의 돈을 동독에 투자했습니다. 그만큼 서독은 돈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서독 사람들이 크게 불만을 갖지 않고 지금도 동독, 서독 통일에 대해서는 통일이 잘됐다고 서독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됐고 복지 예산이 줄어들어서 사

회적으로 약자들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 수준으로 가려면, 그리고 북한 주민이 우리 한국 국민들 경제 수준의 60%에 도달하려면 2천조원의 돈이 필요하다는데, 그 통일 기금을 통일원에서는 마련해야 한다고 하고 재정경제원에서는 왜 돈을 저금하느냐, 그 돈으로 빨리 재투자 해서 부를 증진시키는 게 더 이익이지 몇백억씩 자꾸 기금 만들어서 은행에 쌓아두면 뭐하느냐는 입장이어서 지금 기금 마련하는 것조차도 안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통일 현실입니다. 갑자기 독일식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가 모두 월급의 반 정도는 내놓아야 그나마 될지도 몰라요.

그런 사정인데 우리 남한이 서독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 북한은 동독도 아닙니다. 동독은 그 당시에 88, 89년도에 라이프찌히 교회에 모여서 집회도 하고 축복 시위도 하고 평화를 위한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동독의 여러 기독교 단체라든가 사회단체가 있어서 나름대로 발언을 그래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독 사람들은 매일 서독 TV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동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너무나 넌센스다, 독일을 모르고 독일을 그냥 마구잡이로 한국에 적용시키는 낭만적 주장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남북한의 통일은 그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남북한이 갑자기 통일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동독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유에 대해서 알았어요. 자유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서독의 정책에 대해서 많이 순응을 했는데 북한 사람들은 자유를 잘 몰라요. 우리 나라에 귀순한 귀순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자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자율성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과연 급격하게 통일 됐을 때 한국에 와서 자기의 노동력을 시장에 내놓기가 어려울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동남아시아에서 온 1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어느 대건물에 가서 청소하고 있거나 수위로 일하거나 사사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직업들에 종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한국 국민이면서도 제3국인

비슷하게 취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이 갖게 될 체제적인 불만이 있고, 통일 한국을 저주할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김일성이 먹여 주던 시절을 그리워할지도 모르겠고 또 그것보다도 그 체제에서 이익을 받던 세력들, 노동당의 핵심 간부들, 국가 관료들, 어느 면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백두산이나 만주로 가서 그 때를 그리워하면서 통일한국에 대해서 체제 도전적인 세력으로 가지 말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의 급격한 통일에 대해서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통일 한국이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과 저주의 대상,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질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통일된 상태가 됐을 때 그 통일의 충격을 극복할 수 있을만큼의 사회적, 정치 체제적인 포용성이 있는냐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문제라든가 직업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술인들, 교수들, 핵심 간부들 다 실업자가 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는 애깁니다. 그래서 급격한 통일은 일단 굉장히 조심스럽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주시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지만, 저는 미리부터 어려운 점들을 인식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과 남한이 분열되어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신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북한 기독교인들이나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체제와 이념을 뛰어 넘어서 우리가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한국사회의 역량, 특히 한국 교회의 그런 각성된 의식의 함양이 전제되어야,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통일을 주신다고 했을 경우에 그 선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